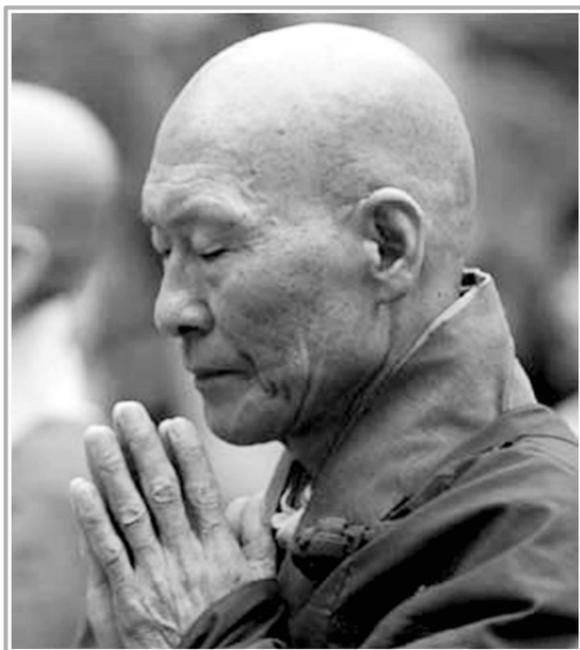


마음 · 세상 · 자연

#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2011 / 3

법정스님 1주기 추모판

## 법정스님 1주기 추모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 같은 곳이다.

그리고 내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누가 뭐라 한대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

다시 출가 수행자가 되어 금생에 못 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

〈法頂 / 미리 쓰는 유서〉

사진: 근 승 량(이종승)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1 / 3

다시 읽는 산방한담 / 법정	4	봄의 이변
1주기 추모사 / 보성스님	7	법정스님 1주기 추모 법어
자승스님	8	스님의 큰 덕화 되새기며...
법정스님을 그리며 / 김무경	10	법정스님, 스님의 다비식 있던 날
허태기	12	꽃이 되어 가셨으니 바람으로 다시 오소서
추모 현장 사진집 / 근승랑	14	법정스님 1주기
산골만화 / 정태경	16	가르침
간담 이사회	17	사죄문
생명의 현장 / 전희석	18	“내일은 뭘 먹을 겁니까?”
인도성자순례 / 박세준	24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와서
시심청심 / 최종원	29	달행이 순가락
보도자료	30	법정 스님 저서 기증 신청
2010년도 수입·지출 결의서	32	비영리 부문, 영리 부문
나누는 기쁨 / 각 봉사모듬	35	2월 활동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40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광주모임
여기는 길상사	46	3월의 길상사 소식 모음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1년 3월 1일 발행 / 통권 193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여운원 / 편집장 이성학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6 / 인쇄인 황두진 /  
인쇄처 농인전산품 / 부산모임 : (051)898-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17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053)753-8883 / <http://www.clean94.or.kr> E-mail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봄의 이변

「물소리 바람소리」 중에서

法頂 (스님)

**입** 벌려 말하기보다 입 다  
**입** 물고 잠잠히 있을 때 삶  
 의 밀도 같은 것을 느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경험에 따르면,  
 쓰는 일보다는 읽는 일이 더 즐  
 겁고, 읽는 일보다는 이만큼서  
 바라보며 생각을 안으로 거두어  
 들이는 일이 더 즐겁습니다.

가득 차 있는 것보다도 오히  
 려 텅 빈 데서 존재의 알맹이  
 를 보게 되고, 밖으로 드러난  
 현상에 눈을 팔기보다 소리 없  
 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우주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있  
 습니다.

새삼스런 말이지만, 오늘 우  
 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시  
 끄럽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에  
 팔리다보면 제 정신을 가누기  
 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된 소리

안 된 소리에 묻히면 자기 자신  
 의 소리를 잃고 맙니다. 그저  
 남의 소리를 흉내 내고 있을 뿐  
 이지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  
 스스로 살지 못하고 무엇엔가  
 떠밀려 살게 될 때, 소중한 우  
 리 인생은 마치 남의 삶처럼 시  
 들해지게 마련입니다.

요즘은 왜 글을 쓰지 않느냐  
 는 물음을 이따금 이는 사람들  
 로부터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  
 끄러운 세상에 시끄러움을 더  
 보태는 일 같아서 좀 쉬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표현을 쓰  
 자면, 되풀이되는 인습과 일상  
 적인 타성에서 벗어나고 싶어  
 쉬는 것입니다. 인습과 타성에  
 찌들면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  
 론하고 뻘뻘스러워지고 무디어

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한 날 티끌이나 소음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내 삶에 성이 차지 않을 때 나는 입을 다뭍니다. 밖으로 향했던 관심과 시선을 안으로 돌립니다. 묵은 받을 일구듯이 내 속뜰을 다시 경작합니다. 벽을 향해 허리를 곧추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마음의 바다에 부침하는 사물들을 지켜보면서 스스로를 텅텅 비웁니다. 텅텅 비워 버려야 새로운 메아리가 울려옵니다.

안으로 시선을 돌리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세계에 마음을 쓰고 그것을 두둔하게 되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매인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사는 일이 즐거움일 수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재하는 것은 그 어떤 외부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불안정하면 모든 것이 불안정해지고 맙니다. 내가 하는 일과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말하기를,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일 수밖에 없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어울려 살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지요. 서로가 기대고 의지하면서 얽혀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서로의 이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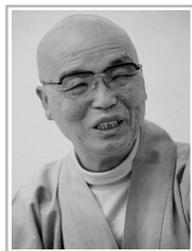
… (중략) …



제작 : 김범수(원광대 교수)



## 법정스님 1주기 추모 법어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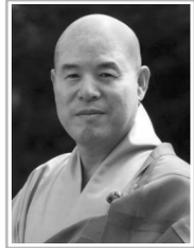
출가미래사(出家彌來寺)하고 쌍계시학눌(雙溪侍學訥)이라  
 놀사수규범(訥師垂規範)하니 발심불퇴전(發心不退轉)이라  
 수용무소유(受用無所有)하고 필설로간담(筆舌露肝膽)이라  
 광도유무연(廣度有無緣)하고 조계시낙조(曹溪示落照)로다  
 회마(會), 천년고목(千年古木)에 개연화(開蓮花)로다

미래사에서 머리깎고 쌍계사에서 스승이신 효봉스님을 시봉했네  
 효봉스님께서 보여주신 냉철한 규범을 보고 발심해서 물러남이 없었으니  
 한평생 무소유를 수용하고 붓과 혀바닥으로 간담을 드러내서  
 유연중생과 무연중생을 제도하더니 인연이 다하자  
 조계산에서 낙조를 보이도다  
 아는가, 천년고목에서 연꽃이 피는 도리를.

삼타주장자(三打拄杖子)하고 하좌(下座)하다.  
 (주장자를 세 번 올리고 자리에서 내려오다.) 🌸



## “스님의 큰 덕화 되새기며 세상과 대중 일깨우겠습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맑고 향기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법정스님! 이 어지러운 오락의 세상에서 아직도 스님의 맑은 가르침을 갈구하는 수많은 중생들을 두고 훌훌히 떠나신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나지막한 말씀으로, 때로는 벽력같은 사자후로 중생의 마음을 일깨워주신 스님!

스님의 삶은 언제나 사부대중의 사표이셨습니다. 출가자에게는 수행자의 본분사가 어떠해야 하는지, 재가자에게는 청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청정의 메아리가 가득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느 것에 얽매이지 않고, 소유하지 않은 대 자유인이셨습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무소유’라는 불후의 명작도 남기셨습니다. 불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이 불교에 가까이 다가서게 만든 무소유는 우리 시대 최고의 불교 포교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소유의 가르침처럼 스님은 언제나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새로 채워지고, 버리면 버릴수록 더 크게 얻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신 강원도 오두막에서 이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옥같은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스님은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의 진면목을 찾으라는 사자후이십니다. 이렇게 간절히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모두 맑고 향기로운 스스로의 진면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스스로의 진면목을 찾을 때 이 세상은 향기로운 메아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부대중은 스님의 큰 덕화를 되새기며 이 땅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일에, 세상과 대중을 일깨우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언제나 중생들을 일깨워 주셨던 범정스님!

하루 빨리 환도중생하시어 저희들을 일깨우는 영혼의 스승이 되어 돌아오소서. 



## 법정스님

一心華 김 무 경 (맑고 향기롭게 회원)

당신을 보내며 울어주기를 바라기보다  
당신이 일러준 대로 바로 살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울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각 두지 않았을 땐 눈물이 안다더니  
아니 울겠다 생각하니 눈물이 자꾸 나네요.

세상만가 生住異滅인 줄 왜 모르나오? 알지요!  
하지만 생각 따로 눈물 따로인 것은  
어이한 연고인가요.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떠가도 당신 생각  
매화가 지에 피어오르는 梅花 봉우리를 봤을 때도  
당신 생각이 날 겁니다.

잔잔하게 물 흐르듯 일러주시는 말씀에도  
우레와 같이 귀 울리던 당신의 말씀은 시제는  
내 마음 속에 장식으로만 남아 하나씩  
펼쳐볼 수 밖에 없는 기억으로만 남겠지요.

하지만 당신이 주고 갚 빛나는 보배는 영원히

※ 경기도 안성에 사시는 김무경 할머니(87세)께서 시 2편을 보내주셨습니다.

## 스님의 다비식 있던 날

一心華 김 무 정 (맑고 향기롭게 회원)

世生生 내 안에 남으리다.

나는 님을 보낸 적 없습니다.

아직 어느 산골 오두막에서 봄눈의 무게를 시기지 못한  
소나무 가지 부러지는 소리 애처로워하시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茶 한잔 우리려고 멀리 샘터로 가 달까지 걸어다

차를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지금도 시어지고 있습니다.

매화나무 옆에서 손수 정자 하나 지어놓고

茶香을 즐기는 그 님은 아직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달을 서서 보는 것보다 앉아서

앉아서 보는 것보다 누워서 보는 것이 더 좋다시며

오두막집 대나무 평상 위에 지금도 님을

달빛에 젖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어찌 그것 뿐이리까. 새벽이끼 먼새가 와서 잠을 깨우고

멀리 복사꽃이 된 재 넘어로 태양이 떠오르겠지요.

나는 님을 보낸 적 없습니다.

아직 어느 산골 오두막에서 손에 정겨운 茶 도구 챙기며

샘물 걸어다 우리는 차 향기는 어찌 님 혼자의 것이겠습니까?

주변을 맑고 향기롭게 오늘도 내일도 먼먼 날들까지

시어지고 또 시어지리다. 정녕 나는 님을 보낸 적 없습니다.

먼먼 날들과 함께 님은 나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 꽃이 되어 가셨으니 바람으로 다시 오소서

지우 / 허태기 (길상사 신도, 전문포교사)

법정스님,  
 바람처럼 오셨다가 꽃처럼 가셨네요.  
 눈을 무척 좋아하셨다는 스님,  
 그래서인지 스님께서 길상사로 돌아오시기 전날  
 내린 눈으로 길상사는 꿈결같이 아름다웠답니다.  
 그 때 스님께서 병원에 계실 무렵이지요.  
 스님을 맞아들이기 위해 부처님은  
 길상사를 그렇게 아름답게 장엄하였나봅니다.  
 스님을 좋아하시는 눈이 다 녹기 전에  
 길상사로 오셨지요.

스님께서 길상사 행지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스님의 회복을 실낱같은 희망으로  
 행지실 문 앞에서 빌었습니다.  
 사시시간으로 스님의 용태가 좋아지셨다는 전갈을 듣고  
 일순 안도했었는데 얼마 후 스님께서 열반하셨다는 소식에  
 실망과 아쉬움을 안고 망연히 하늘을 올려보았습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신 순간  
태양도 잠시 구름 뒤편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구름가장자리로 빛나는 금빛 찬란한 광명은  
미처 거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소식을 접한 걸상사의 신도들과  
평소 스님을 존경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걸상사의 뜨락을 슬픔으로 메웠습니다.  
스님의 법구가 행지실을 떠나는 날  
역새 같은 회오리바람이 한바탕 휘젓고  
멀리 송광사로 스님을 배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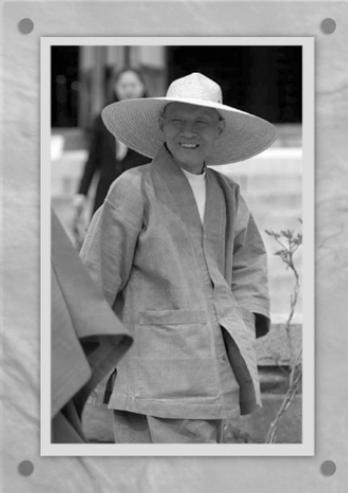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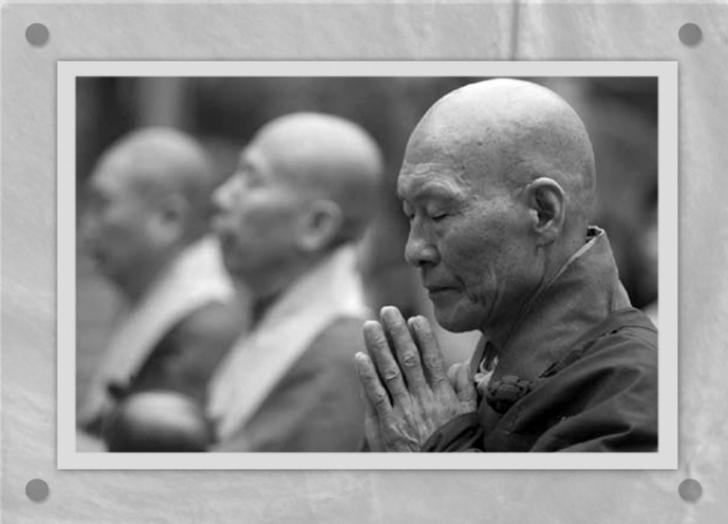
조계산 다비장의 불길 속에서  
한 송이 적련(赤蓮)으로 승화하신 스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을 인간의 삶이 무상함을 새삼 새기면서  
무언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치고 또 흘쳤습니다.

스님의 유해가 걸상사로 돌아오는 날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행지실의 대나무는 유난히 희었습니다.  
스님의 소망대로 부디 퇴양에서 오래 머물지 마시고  
별이 지면 해가 떠오르듯  
번뇌와 병고로 괴로워하는 저희 중생들 곁으로 속히 돌아오셔서  
가없는 자비심으로 저희들을 어루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도록,  
꽃이 되어 가셨으니 바람으로 다시 오소서.



근승강 추모 헌정 사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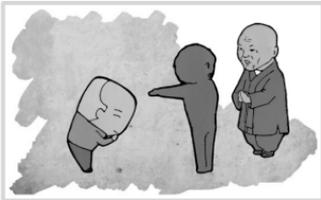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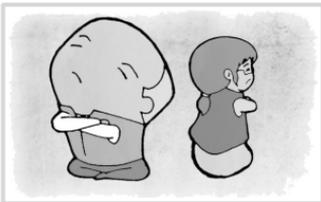
# 가르침

정태경



법정스님과의 첫만남  
그때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한마디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하지만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었다.  
그때는...



결혼 후 맞추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아가면서  
그때 스님의 말씀이  
세삼 다가왔다.

나는  
아내는 물론 아이들과도  
맞추며 살려고 노력한다.  
더 나아가 세상과 지구와도.  
  
내겐 너무나 큰 가르침이었다.





## 사 죄 문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 8인, 감사 2인은 최근 이사장 덕현스님 사퇴를 둘러싸고 야기된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깊이 참회하며 “맑고 향기롭게”에 묵묵히 후원해주신 회원, 봉사현장에서 땀으로 자원 활동 하시는 봉사자, 法頂스님 정신에 공감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 것에 대해 엎드려 정중히 사죄드립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임원일동

3월 2일, 긴급 44차 이사회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긴급이사회가 최근 이사장직을 사퇴한 덕현 스님을 제외한 이사회 임원(이사 8인, 감사 2인) 참석한 가운데 오늘(3월 2일) 오전 11시, 길상사 설법전 지하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사장 덕현스님은 2월 17일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월 20일(43차) 이사회에서 간곡히 만류하여 반려했으나 2월 20일 길상사 주지직을 사퇴하고 떠나셨기에 본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사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긴급이사회에서는 본 모임 정관 제18조 1항에 의거하여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 3대 이사장에 보성 대원사 현장 스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신임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전원과 감사,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현장 스님은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들의 충의를 모아 조속히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앞으로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대의원과 일반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法頂스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실천행을 도모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질책을 간절히 바라웁니다.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중앙사무국



## “대자본의 ‘밥’ 식맹(食盲)들아, 아직도 고깃국 타령이냐?” “내일은 뭘 먹을 겁니까?”

전 희 식 농 부 (전국기농운동본부 공동대표)

이를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했던가. 론다 번이 쓴 유명한 책 <시크릿>은 우리가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파동이 같은 생각을 연이어 하게하고 이를 현실에서 실현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현상을 생 각폭풍이라고 말 한 사람도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사단법인 밝은 마을>에서 하게 된 열하루 동안의 단식수련을 마치니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닥친 일들이 꼭 그렇다.

### 단식수련에서 시작된 인연들

수련 중이던 스물다섯 명 중에서 나를 포함해 열 명 가량이 채식 을 선언했다. 머릿속으로만 육식의 문제를 공감하고 있다가 식생활 바꾸기를 결의한 것이다. 영동에서 농사짓는 손 아무개 선생이 두 시간 여에 걸쳐 채식 열강을 한 덕이다.

구제역이 창궐하고 있는 당시의 정황이 한 뭇 한 것은 당연하다.

단식을 끝낸 뒤 한겨레와 프레시 안에 칼럼을 썼고 그게 인연이 되어 어느 소비자단체의 구제역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보식하는 중에 마주한 수많은 밥상들에는 고기가 안 들어간 그릇을 찾기 힘들 정도였다. 김치에 섞인 고기 들까지 두드러져 보인 것은 단식 하고 채식을 작정한 때문이리라. 새해 상당기간은 구제역과 단식과 채식으로 연결되는 날이였다.

군과 군, 시와 도의 경계를 넘는 길목마다 흰 방역복을 입은 공무원 들이 하얀 생석회 가루를 차량에 뿌어 대고 있는 모습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본다. 신문 귀퉁이에 조그 마하게 오늘은 어디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났다는 소식만 실리곤 하

더니 이제는 방송이나 정당, 종교 단체, 환경단체가 나서서 토론회다 워킹제다 하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말 위기인 모양이다.

아직은 방역대책이 부실하다느니 살처분이 비인도적이라느니 동물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느니 하는 논의만 무성하다. 축산농가 보상과 재난지역 선포에 정치가들이 앞장서고 있다. 가축방역기관과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 **구제역, 우리의 밥상을 들여다보라는 경고다**

그러나 정작 아무도 자신의 밥상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상한 전통인 남 탓, 정부 탓이 이번에도 미리 짜인 일정표처럼 연출된다. 축산 농가들은 날벼락 맞은 희생자다. 축산 농가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한탄과 절망에 공감하느라고 정부의 부실대응과 살처분 일변도의 방역 차단책을 더 질타한다. 자기 자신이 당장 해야 할 책무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오늘은 뭘 드셨습니까? 오늘도 육

수수 많이 드셨습니까? 고기는 안 드셨다구요?”

요즘 내가 건네는 인사법이다. 우리의 밥상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구제역이나 광우병, 조류독감을 막는 대책이란 모두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옛날 옛적에 전국의 모든 교실에서는 도시락 검사를 했었다. 혼식 장려라는 군사정권의 정책에 맞춰 교실마다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밥에 섞인 보리쌀을 확인하곤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밥상을 검사할 때라고 본다.

왜 그러냐하면 동물들의 집단 살처분을 하나하나 역 추적하다 보면 바로 우리가 차리는 밥상이 그 종착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밥상이 동물의 공장형 밀식사육을 부추겼고 밀식사육이 동물학대와 집단살육을 불렀다. 그렇게 형성된 밀식축산은 다시 우리의 밥상을 왜곡시켰다. 사람의 신체구조를 보거나 지구환경의 한계를 보더라도 지금의 산업형 공장축산의 육식은 인류 최대의 적이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밥상이 근 200만 소·돼지 집단살육의 원흉이

라는 거다. 우리가 하루 세 번 차리는 것은 생명의 밥상이 아니고 죽음이고 살상이고 무덤이라고 하면 참 끔찍한 말로 들리겠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푸드 주식회사>라는 영화에 직접 트랙터를 운전하며 등장한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 마이클 폴란이라는 작가는 자신의 저서 ‘잡식동물의 딜레마’에서 “한 끼 식사는 고도의 정치행위다.”라고 말한다. 밥 한 그릇의 이치를 아는 것은 세상만사를 아는 것과 같다고 하신 해월선생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天依人 人依食 食一碗 萬事知 -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을 것에 의지하니 밥 한 그릇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만사를 아는 것과 같으니라. 천도교 경전 ‘천지부모’편)

### 육식이 문제다 -

#### 지구환경과 사람을 망치는 원흉

자연상태에서는 최소 5~6개월 자라야 삼계탕이 되는 닭이 요즘은 부화한 지 27일 만에 삼계탕이 된다고 한다. 같은 무게의 생수보다도 양계장 닭 값이 싸다면 이젠 음식

이 아니라 성장호르몬 덩어리이며 옥수수 몽쳐 놓은 것에 불과하다. 닭들은 앞가슴 살만 기형적으로 발달하는 종으로 개량되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살이 찌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닭고기 하면 앞가슴 살을 찾기 때문이다.

마이클 폴란의 책에는 미국인 한 사람이 1년에 자그마치 1톤의 옥수수를 소비한다는 통계도 나온다. 닭, 양, 오리, 돼지, 소, 칠면조는 물론 심지어 양식장 연어와 장어까지 다 옥수수 덩어리라는 것이다. 육식이 종인 연어가 옥수수를 먹고 속성으로 자라게 하려고 연어의 디엔에이(DNA)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나온다. 옥수수만 한 생산성 높은 사료가 없기 때문이다. 식용유, 과자, 인공향료 등과 라면봉지도 옥수수로 만든다고 한다. 포장지의 코팅도 옥수수로 현대식 건물 대부분의 전자채들, 예컨대 벽판과 이음재, 리놀륨, 유리섬유, 접착제 등도 다 옥수수다. 치약과 화장품, 일회용 기저귀, 배터리, 성냥도 옥수수를 넣어 만든다.

이렇다 보니 옥수수는 끊임없이 다른 식물과 인위적인 가루받이를 하고 유전자를 조작하여 단위면적

당 생산량이 70년대에 비해 2.5배, 20년대에 비해 7배나 늘었다. 말 그대로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지구를 습격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형 동물개체들은 인간을 필두로 모두 다 옥수수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게 돼 버렸다. 한 사람이 1년에 옥수수를 1톤씩이나 먹는다는 사실이 비로소 수궁이 가는 대목이다. 덕분에 토지는 사막화되고 가축은 축산물로 불리며 독이 되어 사람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

원래 소는 반추동물로 되새김질을 한다. 되새김질을 위해 소의 위는 산성인 사람과 달리 산성도(피에이치 pH)가 중성이다. 그러나 섬유질이 없고 전분뿐인 옥수수를 먹게 된 소의 위에서는 발효작용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가스가 생기고 산중독이 된다. 이런 소는 숨을 헐떡이면서 침을 흘리고 설사와 궤양, 고창증(鼓脹症-발효성 사료 섭취에 의하여 제1위에 생산된 가스로 급격히 제1위와 제2위가 팽창하여 소화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일종의 대사질병)에 시달린다. 위 벽이 허물어지고 간에 농양이 생기는 이 병은 어떤 소든지 다섯 달 이상을

생존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항생제를 상용하는 것이다. 아예 사료에 섞어서 소에게 먹인다. 타일로신이나 루멘진 같은 약물들이 그것이다. 호주보다 37배나 많은 항생제를 소에게 먹이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실정은 축산업자들이 더 잘 안다. 늘 약물 중독상태라고 말 한 한겨레 칼럼 덕분에 나는 몇 사람에게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그 말을 바꿀 생각은 없다. 얼마 전에 정부의 축산관련 부처에서 53종이나 되는 항생제를 25종으로 줄였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생계형이 아닌 거대 축산농가들을 일방적인 희생자들로 바라보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다. 축산농가는 이중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의 피해자이면서도 건강한 식탁을 어지럽히는.

### ‘식맹’의 등장

예전에는 글을 모르는 문맹이 있었다면, 요즘은 컴맹이 있고 넷맹이 있다. 최근에는 모든 사람들이 식맹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타락한(?) 식품들의 생산과 가공, 유통

의 비밀을 모른 채 자발적으로 대 자본의 밥이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수백 마리 또는 수천 마리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농부라기보다 축산자본가라고 봐야 한다.

자기가 먹을 것을 생산하기보다 팔기 위해 생산하는 것을 산업이라 하고 그런 사람을 자본가 또는 농기업가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구제역 방역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느니 백신 예방이 늦었다느니 생매장이 끔찍하다느니 하면서 고깃국을 먹고 있는 사람은 전형적인 식맹이다. 사람의 허끝을 농락하는 싼값의 고기를 만들어 내느라고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이다.

재작년부터 대형 식당에는 색다른 안내판들이 나붙기 시작했다. 식재료의 원산지표시다. 특히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면서 국산 고기를 앞다투어 광고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해병대 퇴역 군인들의 모임인 해병전우회라는 단체가 애국심을 북돋는다는 구실로 양담배 피지 말고 국산담배 피우자고 차량에다 써 붙이고 다니는 행위와 같아 보인다. 공중과 텔레비전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설을 맞아

한우를 많이 먹자는 캠페인이 시작되고 있다.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현상들이다. 사람에게 좋은 고기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도리어 육식은 암페타민이나 모르핀 같은 마약류의 향정신성 의약품처럼 엄격히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건강문제, 환경문제, 동물학대문제, 생명경시 풍조 등 모든 지구문명의 총체적 위기를 싸안고 있는 게 바로 육식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식탐이 어느 지경까지 치달을지 식당에 걸린 차림표를 보면 끔찍할 정도다. 항정살이라고 하여 돼지의 목덜미 살만, 그것도 생고기로 내놓지를 않나, 간과 횡경막 사이에 있는 근육질의 갈매기살(일명 안창고기)을 내놓기도 하고 돼지 한 마리당 200그램밖에 안 나온다는 가브리살을 금싸라기 값으로 내놓기도 한다. 가브리살은 등심 왼쪽에 손바닥만 하게 있는 등겹살이다. 그래서 이 고기는 황제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동물의 몸 부위를 골라가며 떼어 내 먹고 있는 사람들의 자멸적인 식탐은 자본의 부추김에 끝 모를 질주를 계속한다.

## 참으로 용기있는 사람.

## 참으로 진보적인 사람

외출할 때 손수건과 도시락과 장바구니 챙길 줄은 모르고 지갑만 챙기고 거울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교양인이라 할 수 없다. 현대의 지식인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다 발로 물건을 사는 사람 일 수 없다.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면서 매식을 일삼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한 끼 밥 한 그릇은 고도의 정치행위라 하지 않았는가.

어제 휴대폰 문자가 왔다. 6년여 전에 도법스님과 생명평화 탁발순례를 하다가 서해안 해창개펄에서 만난 사람이다. 어린 초등학생 아이를 학교도 쉬게 하고서 순례길에 내 보냈던 젊은 엄마다. 문자에는 밥상에 더 이상 고기를 올리지 않겠다고 써어 있었다. 입으로 느끼는 쾌락을 중지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살상은 계속 되풀이되지 않겠다고 하셨다.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내가 쓴 한겨레 칼럼을 보고 바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두어 달 전에 정읍 노인종합복지관에 강의하러 갔다가 무슨 자활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

분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렇게 글 한 편으로 다시 만난 것이다.

<오마이뉴스>에는 <구제역,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다. 최봉실 기사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채식을 실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대단한 개혁가라고 생각한다. 제도와 체제는 바꾸면서 자기 자신은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뒤늦게나마 구제역 사태를 맞아 식생활을 점검하고 습관화된 편리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진보주의자다. 참된 개혁주의자다. 개혁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비참과 환란을 당하여 정치권력자나 시스템을 비판하면서도 자기를 혁신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출현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내일은 뭘 먹을 겁니까? 

※ 2011년 1월 18일 프레시안에 실린 전희식님의 글을 저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실습니다.



##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와서

박 세 준 (법명 轉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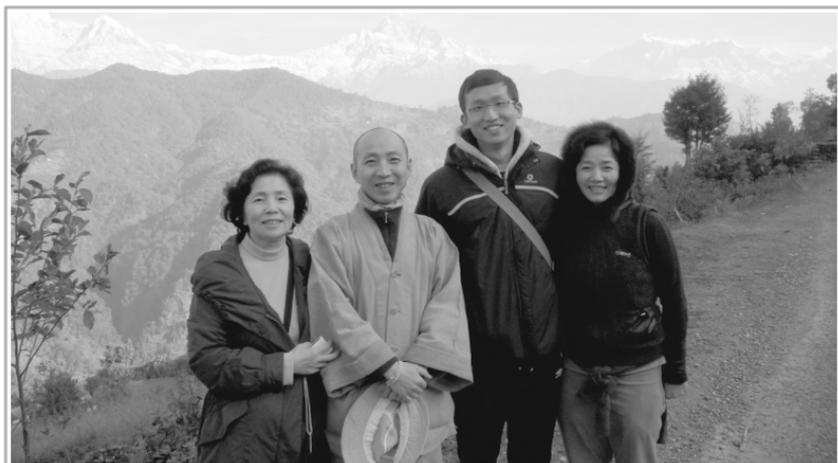
**부** 처남께서 머무시던 자리와 같이 고요히 청아한 곳

마치 향긋한 차의 맛이 처음으로 가슴에 와 닿았던 때처럼, 히말라야에서의 트레킹은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 공명했던 것만 같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어 숨결 속 어딘가에 남아 있는 것만 같다. 지난 1월, 나는 길상사에서 가는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친구들은 또래와 가는 것도 아닌, 혼자 가는 것도 아닌 이 여행을 의아해 했지만 영혼의 스승이 되어주신 두 분의 스님(덕현스님, 보각스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성지순례라면 평생 다시없을 유일한 인도여행이 될 것만 같아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사실 나는 불교에 입문한지 얼마 안 되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초심자이다. 1년 전만 해도 진언을 외우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만 보였던 문외한이었다. 그런 내가 삶의 여정에 있어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래서 한걸음도 떼지 못하고 울상 지으며 무의미라는 의미에 탐닉하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님처럼 나타나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두 분 스님들이시다.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순례기간 만이라도 시봉하겠다고며 시자라는 명분으로 따라 나섰던 나는, 덩벙대며 두 분 스님들께 민폐만 끼친 것은 아닌지 하여 누가 누구 시봉했던 건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렇게 함께 한 인도에서의 순례길은 험난했지만 그만큼 재미와 의미를 겸비한 여정이었다. 전반적인 순례기는 신윤득 보살님께서 지난 호에 올리셨고 나는 히말라야 트레킹 부분을 맡게 되었다.



인도에서의 성지 답사를 마친 우리 일행은 꽤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범퍼카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차량운행에 장시간 시달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네팔로 넘어와 포카라로 향하던 우리 일행은 차창 밖저 먼 곳에 우뚝 솟아 용맹한 자태를 서서히 드러내는 마차푸차레봉을 보고 별떡 일어나 탄성을 내질렀다. 여행길의 피로를 흡수해 가는 듯한 장관은 심하게 덜컹대는 차 때문에 초점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마치 홀린 듯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게 하였다. 내일이면 우리가 저 곳으로 간다. 마치 반

야의 언덕으로 가기라도 할 것만 같은 착각에 황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하긴, 저 봉우리도 비로자나불의 현현이기에, 한껏 선한 마음을 가득 품고 오르면 그것이 또한 반야의 언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리라.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짐을 풀고 포카라 시내를 돌며 산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며 구경을 하기로 했다. 은은하게 내려앉은 안개는 마치 곤륜산에나 있을 법한 선인(仙人)들의 마을에 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벌써 이곳만 해도 공기가 이렇게나 상쾌하고 맑으니 산에 올라간다면 얼마나 더 상쾌할까 싶었다. 아기

자기한 상점들과 카페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었다. 네팔 특유의 화려하면서도 촌스럽지 않은 색감의 물품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들어왔다.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꿈꿈이 생각해 보는데, 이곳의 위대한 자연이 사람들의 심미안을 자연스럽게 길러주었을까. 도시에서 마구 뛰어짜듯 나오는 물질주의적 냄새가 폴폴나는 양식들에 비춰보았을 때, 이곳의 미감은 매우 자연스럽고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서려있다. 이런 미술과 조우할 때, 나는 현대미술과 미학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가족들 줄 이런 저런 옷가지와 내 옷도 한 벌 샀다. 우리 돈으로 3만원도 안 되는 값에 엄청나게 따뜻한 헨드 메이드 울 잠바를 샀기에 매우 흡족해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일행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완전히 바가지를 쓴 것이라 하며 훨씬 싸게 산 물건들을 보여주었다. 그래도 잘 샀다며 위안해 보지만 이미 상해버린 이 기분, 이 간사한 마음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뒹고.

다음날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선 우리들은 트레킹 코스가 시작되는

너야폴로 이동했다. 미시령, 한계령은 저리가라 할 굵이굵이 구절양장 길을 지나 조그만 마을에 이르렀다. 추운 몸을 달래주는 짜이 티를 한잔 마시고 드디어 산행 길을 나섰다. 지나쳐 가는 길목마다 순박한 네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나마스테!”하고 인사를 건네면 무심한 듯 자연스레 답례해 준다. 스님계선 지나가는 어린 소년 소녀들에게는 어김없이 꾸러오신 사탕이나 볼펜, 장난감 등을 나눠주셨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수줍어하면서도 만연한 미소로 고맙다는 말을 대신한다. 이심전심이다. 나도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며 따라 해보았다. 빈곤한 덕 때문일까. 아직은 이런 행동이 어색하다. 그동안 얼마나 나눔에 인색했는지, 내 것도 모자라다며 받기만 하고 심지어 뺏을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진 않았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네팔 사람들의 집을 지나치며 그들의 소박한 삶을 엿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 만 원이면 상당히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하니 한 달에 30만원, 일년에

360만원, 10년에 3600만원, 100년에 3억6천, 마음 속에서 집짓고, 돈별고, 결혼한다. 어느새 네팔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 나. 이 놈의 번뇌란... 산봉우리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소리친다. “헐!”

장엄한 경관은 지나온 발길이 쌓일수록 더욱 수승해졌다. 산 길 옆으로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 구름인듯 공기를 가득 품은 산등성이들과 조그만 벌집 마냥 아기자기한 계단식 논들. 공기는 차가운 듯 촉촉하고, 온갖 식물들의 깊은 향과 산기운이 서려있어 이 세상 공기가 아닌 듯 했다. 아무래도 천상으로 통하는 틈새가 어딘가 있어 바람이 조금씩 세는 듯하다. 호흡을 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것만 같다. 양떼들과 심심치 않게 마주치게 되고 어딘가에서 튀어나온 검둥이가 온통 제 집인 마냥 끝도 모르고 길을 재촉하며 안내했다. 그렇게 신선놀음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우리 일행은 룯지(산장)에 들어가 언 손발을 녹이며 하룻밤 보낼 체비를 하였다.

이튿날, 창가 쪽에 머리를 두고 자서인지 일어나보니 얼굴이 좀 얼



얼했다. 따끈한 아침을 먹고 또 다시 길을 떠났다. 우리의 원래 일정은 고레파니까지 올라가서 하룻밤 더 머물고 새벽에 푼힐 전망대가 해돋이와 경치를 감상하고 내려올 예정이었지만, 안개가 점점 자욱해지는 날씨와 멤버들의 컨디션 난조 때문에 푼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 고레파니를 좀 지나 해발 3,000m경에서 점심을 공양한 후 조금 일찍 하산을 하기로 했다. 언제부터인가 눈이 점점 땅을 덮더니 고레파니에 이르자 길이 꽤나 미끄럽고 위험하게 되었다. 점심을 공양할 식당에 도착하여 설경을 감상하였다. 난룯가에서 감자를 구워먹었는데, 스님께서 드실 감자가 잘 익었네 덜 익었네를

놓고 장난삼아 실랑이를 버리기도 했다. 스님께서는 97점을 주시는 등 일단위로 정밀하게 평가해 주셔서 더욱 재미있게 먹었다.

점심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은 더욱 조심스러웠다. 저마다 여기저기서 지팡이로 삼을 나무를 마련하여 짊어가며 내려와야 했다. 눈길에 계단 폭이 꽤나 높아서 종종 엉덩방아를 찧는 일도 생기고 다리를 다치는 분도 있었다. 나도 무릎이 시큰했다. 하지만 뒤쳐질 걱정에 맨 앞에 세웠던 가장 어른이신 보살님 들께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젊은 사람들도 훨씬 빠르고 사고 없이 잘 내려가셔서 더 이상 보이지가 않으실 정도였다. 역시 산행도 연륜의 지혜가 쌓여야 하는 것인가 보다.

두 번째 밤을 묵을룻지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 먹을 준비를 하였다. 스님께서는 상당히 지친 우리들을 위해 보약과도 같은 법문을 설해 주셨다.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부처님의 전생과 역행보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참으로 가슴 깊이 다가오는 법문이 아닐 수 없었다. ‘장애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지녀야 할 것 같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이도 저도 아니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수많은 이론과 사상이 난립하는 현대 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 타협적인 일반론이나 애매한 혼합주의로 희석되어 결국엔 자기 정체성도 잃고 합리화하며 스스로 깊은 잠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 날, 내려오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비록 여기저기 크고 작은 상처는 입었지만, 해묵은 마음의 어둠을 히말라야의 눈빛으로 밝혀 몰아내고 대신 그 곳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청정하고 조금은 시린 산내음을 수혈 받았기 때문이었다. 또 스님을 모시며 맑은 기운을 전달 받고, 법문을 음미하고 소화시켜 단전이 영혼의 포만감에 두둑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저 높은 히말라야의 마차푸차레 봉우리가 부처님의 청정 법신임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 달쟁이 숟가락

최 종 원 (천안시 불당동)

내 손목이 시리도록 몸을 놀려야  
 일곱 식구가 밥을 먹었다.  
 내 마음을 일체 돌아보지 않아야  
 한 가족이 평화로울 수 있었다.  
 한 생애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화살 같은데  
 돌아보니 전생에서 어떤 업보를 가져왔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겠다.  
 솔단지 밑바닥에 검게 늘어붙어 마저 떼어내지 못한  
 비록 그 번뇌가, 그 망상미, 미생애까지 따라 나온 것  
 남산 돌계단 무수한 껌 딱지 떼어내어  
 본래 길을 들어내듯이  
 나도 늘어붙은 업보를 떼어내기에 한 생애가 아깝지 않구나.  
 손목이 시린 것도 감사하구나,  
 내 숟가락이 달쟁이가 되어  
 밥숟가락의 용도로 쓰이지 못하다 해도 자랑스럽구나.  
 뼈만 남은 몸미어서 날카롭게 정곡을 찌를 수 있도록  
 한순과 원망을 다 털어내야 들어선다는 열반의 문을 향해  
 다듬고 버루어 준 세월과  
 나 아닌 모든 미들에게 감사하구나.



# 보도자료

※ 지난 2. 23 ~ 3. 2(8일간) 접수한 후 전국도서관에 발송한 ‘법정스님 저서 기증 신청’ 보도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소식지에 실습니다.

## ▣ 무소유의 스승, 법정 스님 저서 기증 신청 접수

무소유의 스승, 법정 스님의 <절판 유지>를 받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품 도서 중 일부를 본 법인과 스님의 저서를 발간한 각 출판사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공공시설 도서관에 기증코자 합니다.

본 법인은 법정 스님께서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순수 시민들의 모임>으로 창립하셨고, 저작권까지 상속 받았음에도 <절판>이라는 스님의 유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반된,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임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스님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는 각 출판사 역시 계약 기간이 엄연히 남아 있는 책에 대한 출판권을 포기하는 힘겨운 결정으로 <절판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다는 <절판 합의>, 이제 그 마지막 방점을 찍고자 합니다. <인세의 공제 또는 환불>과 <일부 반품 도서의 공공시설 기증>이 그것입니다. 당초 합의 내용은 지난 2010년 12월 31일로 판매 종료한 법정 스님의 저서 중 본 법인 발행 인지를 부착한 채 반품된 도서에 한해 인세를 공제 또는 환불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한 발 더 양보, 법정 스님 생전 발행된 인지와 스님의 입적 직전 또는 직후 인지를 받을 수 없어 무인지로 발간했으니 추후 본 법인에 인세 보고를 한 경우의 반품 도서에 대해서도 인세의 환불 및 공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반품 도서 중 근 7만 여 부의 책을 공공시설 도서관에는 기증 신청을 받아 기증할 것이며 각 교도소는 교정국을 통해, 군부대에는 국군문화진흥원을 통해 일괄적으로 기증하는 것으로 본 법인과 각 출판사가 다



시 한 번 뜻을 모았습니다. 단, 이번 기증에는 기증 도서들이 분실의 우려로 인해 배송비 착불과 기증 도서임을 알리는 스티커의 부착(동봉 발송, 기증 기관에서 부착)기증 받은 도서에 대한 물품 인수증을 필히 본 법인으로 보내 주셔야 각 출판사들에 대한 기증 도서에 대한 인세 환불이 원만히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한여름의 타는 무더위를 식혀주는 한 줄기 석간수 같은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을 담은 저서들이 가급적 폐기 처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이렇게 결과를 맺었습니다. 이로써 무소유의 스승, 법정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절판 합의>에 따른 모든 상황들이 정리될 것이며 오는 2011년 3월 31일로 인세 환불 및 공제까지 모두 종료기로 본 법인과 각 출판사가 최종 합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본모임은 전국 공공시설 도서관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 ■ 법정 스님 저서 기증 방안

1. 기증 대상 및 기증 수량 : 총 5,510질(총 70,370여 권)
  - ① 전국의 공공시설 도서관 3천질 - 기증 신청 접수 후 기증
  - ② 진중문고 - 2천질(국군문화진흥원 통해 전 군부대로 일괄 기증 확정)
  - ③ 교정국 - 5백10질(법무부 교정국 통해 전국 교도소에 일괄 기증 확정)
  - ※ 1질은 출판사별로 구성하되 각 종당 1권씩 배분
  - ※ 공공시설 도서관 규모에 따라 최대 3질까지 기증 예정
2. 기증 신청 기간 : 2011년 2월 23일(수)~3월 2일(수) 8일간
3. 기증 신청서 접수 : e-mail(clean94@hanmail.net), 팩스(02-741-4698)
4. 신청서 양식 : www.clean94.or.kr(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5. 기증 방식 : 기증 도서 스티커 부착, 배송(착불), 인수증 팩스로 제출



## 2010년도 수입·지출 결산서 - 비영리 (2010.01.01 ~ 2010.12.31)

### 가. 세입부(수입)

단위 : 원

관	항	예산과목	2010년도 세입 예산액	2010년도 세입 결산액	증감내역 증(△) 감(▽)	금년세입예산 산출근거	비고
기본수입	일반	서 울 회 원	260,000,000	341,633,380	▲ 81,633,380	회원 및 외부회원	무덕재단
		소 계	260,000,000	341,633,380	▲ 81,633,380		
보통수입	특별	결 식 아 톨 후 원	3,600,000	3,000,000	▼ - 600,000	회원 및 외부회원	
		결 식 이 후 후 원	140,000,000	204,166,647	▲ 64,166,647	회원후원	
		일 반 후 원	10,000,000	24,038,000	▲ 14,038,000	회원후원	지정후원
		장 마 금 후 원	5,000,000	3,330,000	▼ - 1,670,000	회원 및 외부회원	
		소 계	158,600,000	234,534,647	▲ 75,934,647		
	자연을 찾아가는 사람들	알뜰환경지킴이 인	9,600,000	10,356,500	▲ 756,500	참가비 및 외부후원	
		소 계	35,650,000	31,848,457	▼ - 3,801,543	생협블룸구입 비 및 외부후원	
		소 계	45,250,000	42,204,957	▼ - 3,045,043		
	대 구 회 원	대 전 회 원	300,000	440,000	▲ 140,000		
		대 전 회 원		10,000	▲ 10,000		
		예 수 금	1,000,000	434,875	▼ - 565,125		전년도이월금 제외
		소 계	1,300,000	884,875	▼ - 415,125		
특별회계	특별회계	장 래		19,763,057	▲ 19,763,057	헝가리 임이자외	수 회우스님
		소 계	-	19,763,057	▲ 19,763,057		
합 계			465,150,000	639,020,916	▲ 173,870,916		
전 년 이 월 금			530,302,107	530,302,107	-		
총 계			995,452,107	1,169,323,023	▲ 173,870,916		

### 나. 세출부(지출)

단위 : 원

관	항	예산과목	2010년도 세출 예산액	2010년도 세출 결산액	증감내역 증(△) 감(▽)	금년세출예산 산출근거
사	장학 사업비	장 학 금	58,500,000	48,090,470	▼ - 10,409,530	서울소재 고교 등교비 평균치*29인
		소 계	58,500,000	48,090,470	▼ - 10,409,530	
	결연가족 후원사업비	결 연 가 족 후 원	13,400,000	18,563,700	▲ 5,163,700	
		결 식 이 웃 후 원	199,800,000	177,379,980	▼ - 22,420,020	
		일 반 후 원	33,600,000	6,700,500	▼ - 26,899,500	재해민, 불우이웃 및 시설 제 정지원, 의료비 지원 등
		국 제 구 호 사 업	10,000,000	-	▼ - 10,000,000	2009년에 한해 나눔사업 확 대할 위한 예비비
		특 별 후 원		24,774,600	▲ 24,774,600	아이티후원,복합원기, 군법당
		소 계	256,800,000	227,418,780	▼ - 29,381,220	



## 2010년도 수입·지출 결산서 - 영리 (2010.01.01 ~ 2010.12.31)

### 가. 세입부(수입)

단위 : 원

예산과목			2010년도 세입 예산액	2010년도 세입 결산액	증감내역 증(△) 감(▽)	금년세입예산 산출근거	비고
관	항	목					
수입	특별회계	저작권		2,038,600,981	▲ 2,038,600,981	인세	
		잡이익		18,674	▲ 18,674	분담정산, 할인액	
		이자수익		17,647,468	▲ 17,647,468	은행결산이자	
		소계	-	2,056,267,123	▲ 2,056,267,123		
기타		부가세예수금		203,860,082	▲ 203,860,082		
		소계		203,860,082	▲ 203,860,082		
합계				2,260,127,205	▲ 2,260,127,205		
전년이월금						-	
총계			-	2,260,127,205	▲ 2,260,127,205		

### 나. 세출부(지출)

단위 : 원

예산과목			2010년도 세출 예산액	2010년도 세출 결산액	증감내역 증(△) 감(▽)	금년세출예산 산출근거
관	항	목				
특별회계	특별회계	업무수당		2,000,000	▲ 2,000,000	
		자문료		8,264,000	▲ 8,264,000	
		인쇄비		8,332,500	▲ 8,332,500	
		세금과공과		126,749,410	▲ 126,749,410	법정스님관련 세금
		장학금		8,000,000	▲ 8,000,000	범우사
		지급수수료		3,000	▲ 3,000	
		부가세		166,337,931	▲ 166,337,931	
		소계		319,686,841	▲ 319,686,841	
합계				319,686,841	▲ 319,686,841	
차기이월금				1,940,440,364	▲ 1,940,440,364	
총계				2,260,127,205	▲ 2,260,127,205	

※ 법정스님 저서 인세 회계 결산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4월 초에 공지하겠습니다.

**모희원(2월 20일)**

(소감: 한인섭 모듬장)

아침 날씨는 제법 쌀쌀했지만 해가 뜨면서 날씨가 청명하고 따뜻했다. 아직 관악산에는 잔설이 남아 있고 공기는 봄 냄새가 묻어나고 있다. 요즘 겨울철 농한기라 맑고 향기롭게 회원 외에 개별적인 학생 봉사자는 없었다. 오늘은 회원 13명이 오붓하게 봉사했다. 오늘 할 일은 메주 띄우기와 모래 깔기였다. 주방 일 돕는 회원 2명을 제외한 11명이 메주가 달려 있는 곳간으로 갔다. 콩을 삶아 만든 메주가 딱딱하게 굳은 채 선반에 매달려 있었다. 우리가 할 작업은 따뜻한 방에 깔판을 깔 뒤, 짚을 깔고 그 위에 떼어온 메주를 쌓은 후, 다시 짚으로 덮고 마지막으로 담요를 덮는 것이었다. 이 작업을 메주 띄우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메주를 따뜻하게 해주면 발효가 되면서 좀 더 고약한 냄새가 나고, 이 과정을 통하여 구수하고 건강에 좋은 된장의 재료로 변화한다. 네모난 메주를 떼어 운반하고, 쌓는 작업으로 역할 분담을 하자 작업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다음 작업은 모래를 까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모희원 정행처사님이 큰 솥에서 불을 지피고 있어서 메주 띄우기 작업을 마친 회원들은 배가 출출한지 군고구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총무님이 고구마를 구하러 갔고 나머지 회원들은 삼과 곡갱이를 들고 모래를 실으러 갔다. 최근 날씨가 많이 풀려서 그런지 모래 파기가 좋았다. 경운기로 모래 2-3차를 운반하고 난 뒤 삶은 고구마와 준비해 간 곶감으로 새참을 맛있게 먹었다. 나머지 모래를 마저 나르고 식사 후, 운반한 모래를 바닥에 까는 일을 마쳐 우리의 모든 작업이 끝났다. 바람도 없고 너무 쾌청하여 상경도중 의왕 백운호수를 들러 40분가량 호수 주변을 거닐며 산책을 하고 서울로 출발했다. 오랜만의 따뜻한 날씨에 메주작업도 순조로웠던 하루였다.

**진인선원(13일, 매월 둘째 일요일)**

(소감: 이금재 모듬장)

날씨가 풀리는 듯하다 다시 추위가 기승을 부린다. 반가운 한 분 한 분이 모여 우리는 북으로 갔다. 날씨가 추우니 김치통 씻기는 하지 말라는 윤은혜 영양사 선생님의 말씀에 애뜻

한 사랑의 마음이 전하여져 온다. 오전은 주방을 도우고 청소를 마치고 오후에 놀이 활동을 하였다, 행복하지 못하게 어르신 건강이 좋지 못하여 관음원 한곳에서만 진행하였다. 어르신들의 쾌차를 두 손 모아 기원 드린다. 맑고 향기롭게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치열한 토론과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우리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천주교, 기독교, 무교, 불교 등 다양하다.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여 형제님, 성도님, 보살님 등의 다양한 호칭을 사용한다. 논쟁의 끝은 근본의 시작이 어디서 근원되었는지 되짚어보면 답이 보인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었다. 맑고 향기롭게의 시원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맑고 향기롭게 사상의 뿌리는 무엇인가? 과연 그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 행사의 형식을 바꾼들 그 색깔이 지워질까? 중요한 것은 주어진 바탕에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참여하신 형제님, 성도님, 보살님들의 의견이다. 우리는 지난해 참여비 271,000원이 남아 고나경 형제님의 인천 전통성당에 건축기금으로 기부하였다. 2011년 1월 23일 인천주보에 실렸고,

일요미사가 끝나고 공지시간에 신부님이 고나경 형제에게 맑고 향기롭게 대하여 소개하실 시간을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다. 이러한 일들이 맑고 향기롭게 사는 것의 하나라 우리 진인선원 자원활동 모임을 생각한다. 다음 달에는 모든 음식 맛의 근본인 간장을 맛있게 담자는 윤은혜 영양사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맑고 향기로운 간장 담기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 모임장소를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서 08시 20분으로 장소를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 고맙고 예쁜심 회원님들의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8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겨레 마라톤 10km에 맑고 향기롭게 앞치마를 입고 참여하기로 하였다.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말벗봉사(매주 한 통화씩)  
봉사자별 월간활동 공유  
(담당: 임진성 모듬장)**

● **이찬희**: 제 말벗 대상자는 아니지만, 지난해 쌀을 전해드릴 때 방문한 적 있는 박OO 어르신께서 명절 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눈길에 미끄러진 분이 두 분이나 계셨다. 그리고 수도와 하수관이 얼어서 고생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셨다.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본다.

● **김남주**: 가양동에 사는 강OO 어르신은 희귀난치성 질환인 혈우병을 앓고 계신데, 아들 또한 유전되어 건강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 간호 중이라 한다. 입원을 요하나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어하신다. 한국혈우재단이란 단체가 있어 안내해주었다. 설 명절 때 꾸밈한 반찬과 선물에 다들 감사해 하셨다. 이OO 어르신은 목 디스크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잠자기가 힘들다한다. 겨울철에 어르신들 대부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다.

서울시립수락양로원  
(1, 2, 3, 5주 목요일)  
(담당: 홍선주 모듬장)

● **2월 10일**: 설 연휴로 인해 2월 들어 처음 양로원을 방문했다. 오랜만이라

생소하신지 어떻게 왔냐고 물으시는 어르신도 계신다. 고영환 어르신은 양로원을 다닌지 7년이 됐지만 늘 어느 정도의 짜늘함이 있다. 오늘은 왕종선 어르신이 보이질 않는다.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으셨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셨단다. 가슴 한켠이 서늘하다. 언제나 짝꿍처럼 나란히 앉으셨는데 고영환 어르신도 왕할아버지의 부제가 허전하신지 “남자는 나 혼자네” 하시며 자꾸 뒤돌아보신다. 그래도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 언제나처럼 힘차게 흥겨운 민요를 불러주셨다. 100% 출석률의 고영환 어르신 건강 조심하세요. 왕종선 어르신 쾌차하셔서 다음 주엔 꼭 뵙기를….

● **2월 17일**: 오늘은 정월 대보름날. 대보름 행사로 양로원 옷놀이대회가 열렸다. 양로원측의 요청으로 우리 맑고 향기롭게 팀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르신들을 9개조로 나누어서 토너먼트로 진행되었는데 우리 5명도 각 팀으로 배치되어 어르신들을 도와드렸다. 할아버지들의 승부욕이 청년들 못지않아 진 팀원 중에는 속상해 가버리시는 분도 계셨다. 결승전은 할아버지팀과 할머니팀의 대결

이 되었는데 할머니팀의 승리로 끝이 났다. 처음부터 2번이나 가위바위보에서 이겨 부전승으로 올라온 팀이었다. 어르신들과 함께 흥겨운 웃놀이 한편, 우리도 즐거웠다.

### 서울노인복지센터(월요일)

(담당: 권미자 모듬장)

● **1월 24일 권미자**: 노인복지센터에 나오는 많은 봉사팀 중 우리 맑고팀이 우수 봉사팀으로 추천받아 오늘 노인센터 소식지에 소개될 인터뷰를 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과 노인센터 봉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가장 잘하는 봉사팀, 친절한 봉사팀으로 추천받을 수 있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봉사자들과 감사한 마음이다.

● **2월 7일 김숙희**: 오늘은 국 당면. 우거지국 냄새가 구수하게 내 코를 자극하는데 아침을 조금 먹었더니 무척이나 배가 고팠다. 오후에 스님께 인사드리러 모두 길상사로 향했다. 스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반갑게 맞아주시고, 손수 정성스럽게 차를 내려주셨다. 언제나 맑고 봉사자님을 걱정해주고 격려해주신 스님,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2월 14일 권미자**: 오늘 점심에는 오랜만에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설령탕이 나왔다. 설령탕 국물에 따로 당면 넣고 고기 한 점이라도 골고루 얹어드리느라 손이 바빴지만 잘 익은 김치와 함께 설령탕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 모습은 언제나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는 피로회복제입니다.

● **2월 21일 박진희**: 고등학교 때는 방학숙제로 점수 때문에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는 마음도 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 봉사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처음 간 노인복지센터. 생각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놀라웠다. 식판을 닦으면서 우리 너머로 보이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짠하게 했다. 하루에 한 끼를 노인복지센터에서 끼니를 챙기신다는 분들,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해서 나오신다는 분들도 계신다고 한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의 앞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내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어떤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배우고 왔다.

## 승가원(1, 3주 일요일)

(담당: 흥정근 봉사팀장)

평소에는 매트를 일렬로 깔고 요가 선생님을 보고 요가활동을 했었는데 셋째 주에는 특별하게 아이들과 봉사자들이 2조로 나뉘어서 원을 그리고 앉아 서로서로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둥글게 모여앉아 몸풀기 자세, 앞으로 굽히기 자세, 전굴 자세, 삼각 자세 등 다양한 자세를 실시하였다. 평소와 다른 배열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낯설어 서로 눈치 보기 바빴지만, 곧 익숙해져 금방 요가활동에 집중하였다. 다양한 요가 동작이 끝난 후에는 이전처럼 선생님을 보고 앉아 휴식을 위한 몸 풀기를 실시하였다. 평소보다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피로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명상과 휴식시간을 가졌다.

## 결식이웃 밑반찬 조리

(매주 목, 금요일)

(담당: 최두리 모듬장)

● **10, 11일**: 첫째 주는 설 연휴로 반찬을 쉬었지만, 주부들의 연휴 피로가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맑고 반찬

을 기다리는 대상자들을 생각하면 힘이 불끈 솟는다. 아직은 날씨가 쌀쌀해 난로 옆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다.

● **17, 18일**: 이번 주는 정월 대보름이어서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콩나물 등 나물류와 호두, 밤, 땅콩, 김 등을 전달했다. 봉사자들이나 대상자들이나 모두 보름달처럼 둥근 마음을 간직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 **24, 25일**: 날씨가 풀려 겨우내 얼었던 바깥의 수도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다. 이번 주는 봄기운이 물씬 나는 봄동무침을 했다.

(총 392가구, 단체 1곳)

1째주 - 설 연휴 휴무

2째주 - 새송이 아채볶음, 톳무침

3째주 -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  
호두, 밤, 땅콩, 김, 상품권

4째주 - 삼치조림, 봄동무침

● 결식후원금 1/1 ~ 1/31

27,197,637원

결식이웃 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서울모임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 후보 추천 받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성적의 학생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소 성적은 뒤처지더라도 착하고, 성실하고, 밝은 심성의 학생, 그러나 넉넉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힘겹게 학업을 해야 하는 학생이 혹 내 주변에 있는지 돌아보고 가까이 추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단 정부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에 대해서는 추천 내용의 점검을 위해 학교와 주민자치센터 등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중으로 장학금을 지원 받게 되면 부득이 학비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 대상 : 고등학생 (3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 (4/4분기마다 각 학교 외부 장학금 통장으로 직접 입금됨)
- 장학 내용 :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포함한 학비 전액
- 추천자 :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 맑고 향

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 구비서류
  - ① 추천서 - 추천자 성명, 주소, 연락처, 회원 여부 명기, 학생의 생활 형편 및 성품, 성적, 추천 사유를 자세히 기재
  - ② 학생서류 - 가족관계부,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 성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 신입생) 연락처, 실제 거주지 주소, 학년, 반 명기
- 추천서 접수 마감 : 2011년 3월 25일(금)
- 장학생 선정 통지 : 2011년 4월 1일(금)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장학증서 수여식 : 2011년 4월 9일(토)
- 문의처 : 02-741-4696~7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10년 후원금 미납으로 인한 소식지 발송 중지**

칭찬 하십니까? 아뢰올 말씀은 본 모임의 소식지인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2007년부터 연 5천원 이상 후원하는 회원님에 한하여 개별우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2010년) 후원 내역이 없는 경우 부득이 2011년 3월호 소식지부터 개별우송이 중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나, 익명으로

꾸준히 후원해 주신 회원님이 계신다면 사무국으로 꼭 연락 주시면 확인 후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정이 있어 후원금이 미납된 것이라면 이 또한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 후원금의 운용처

- ▶ 결식후원: 결식아동, 독거노인, 극빈 가정, 장애우 가정을 위한 밑반찬 후원(결식이웃밑반찬) / 후원계좌: 국민 817-01-0255-458
- ▶ 일반후원: 본 모임의 전반적인 활동 후원(결연시설후원, 장학금, 다양한 환경활동 및 기타 운영전반) / 후원계좌: 국민 817-01-0253-129 / 외환 117-13-60373-4 / 농협 02-01-199412

**지roh원에서 CMS후원으로 바꾸시면**

2월 소식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지roh원에서 CMS후원으로 변경하고자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roh에서 CMS후원으로 변경하면 버려지는 종이를 줄이고, 전산오류로 인한 회계담당자와 우편작업 봉사자들의 일손을 줄이며, 회원님들이 내신 후원금이 불필요한 운영경비로 지출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

습니다. 작은 실천이 맑고 향기롭게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불편한 지roh 후원을 CMS후원으로 바꾸시려면 언제라도 사무국으로 전화 주세요.

**소식지 발송 봉사자 모집**

소식지 발송 작업은 매달 초(3-5일) 사이에 이뤄지며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전후로 길상사내 '설법전 또는 소강당'에서 행해집니다.

매월 5,000여부를 발송하며, 평균 1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때론 일손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시간적으로나 힘에 겨워 참여할 수 없었던 분이라면 사무국으로 신청하시면, 사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편히 받아보는 소식지 한 권에는 많은 분들의 손길이 깃들어 있습니다.

**결식이웃을 위한 자원 활동가 모집**

멀리 있는 행운보다는 가까이 있는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전 9시반 ~

- 밑반찬 배달 자원활동: 매주 금요일 오후

### 해피빈 - 종이 만드는 행복한 기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사이트 해피빈을 아시나요? 네이버에서 메일을 보내거나 검색, 배너를 클릭하다 보면 해피빈콩이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면 100원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모아진 콩을 원하는 기관에 기부할 수 있고요. 콩 하나는 작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점점 커지겠지요. 맑고 향기롭게 모임도 해피빈 콩을 기부 받고 있습니다.

- 맑고 향기롭게 모임 네이버 해피빈 주소 <http://happylog.naver.com/clean94.do>

### '의류재활용 소품 만들기'는

#### '의류재활용 봉사팀'으로 변경운영

2011년부터 의류재활용 소품 만들기 소모임은, 2010년 매주 의류재활용 리폼에 자원활동해 주신 회원 분들을 중심으로 <의류재활용 봉사팀>으로 거듭났습니다. 봉사팀은 여러분께서 기증하여 주신 헌옷이나 자투리천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어 알뜰시장을 통해 판매하고, 필

요한 시설에 기증도 합니다. 새로 거듭난 봉사팀이 더욱 멋진 소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재미있는 교육의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매주, 삼청동 총리공관 맞은편 골목에 있는 '비천'이라는 바느질 공방에서 손 수 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헌 청바지나 헌 남방은 모았다가 서울지부로 기증해 주세요.

### 진인선원 봉사팀 출발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경복궁 건춘문 앞'에서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20분 출발)

### 3월 서울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길상사 - 맑고 향기롭게 주말 선 수련회 / 신참반: 3월 19~20일(셋째 주말) / 구참반: 3월 26~27일(넷째 주말)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 활동

/ 매주 목, 금요일(3월 3, 4, 10, 17, 18, 24, 25, 31, 1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 맑고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10일은 김치 담그는 날)

- 묘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일손 돕기 정기자원활동 / 첫째 일요일(3월 6일) 오전 8시 30분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 / 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3월 13일) 오전 8시 20분 /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서울시립수락양로원 노래봉사 자원활동 / 1, 2, 3, 5주 목요일(3월 3, 10, 17, 31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1번 출구 집결 / 일반 자원활동자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3월 7, 14, 21, 28일),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3월 2, 16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 다른 요일 자원활동자도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자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

/ 둘째, 셋째 일요일(3월 13일, 20일) / 오전 9시 30분 ~ 12시 / 청소년 봉사자

- 전화말벗봉사 정기모임 / 3월 14일(매달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 서울모임 사무실
- 국군복제병원(고양시 덕양구) 내 법당 점심 조리봉사 / 매월 둘째, 셋째 일요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3월 2, 9, 16, 23일)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세럼, 한방비누 순으로 만듦) / 소강당 옆 거사림 / 선착순 8명 마감 / 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소품 만들기는 2011년부터 매주 의류재활용 리폼에 자원 활동해 주신 회원 분들을 중심으로 〈의류재활용 봉사팀〉으로 운영됩니다.

〈기타 활동〉

- 봉사팀 모듬장 회의 / 3월 23일(매달 넷째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서울모임 사무실
- 소식지 발송 / 3월 7일(우편분류 2월 25일)

일반사업 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부산모임(051-898-2672~3)**

**3월 부산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몸어르신 밑반찬 지원 활동  
2 / 9 / 16 / 23 / 30일(매주 수요일)  
10:00~12:00
- 장애인 이동목욕  
2 / 9 / 16 / 23 / 30일(매주 수요일)  
09:00~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보조 및 시설정화  
3 / 10 / 17 / 24 / 31일(매주 목요일)  
10:00~13:00
- 부산시 노인전문 제1병원 치매어르신 목욕봉사  
3 / 17일(1, 3주 목요일) 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병동 목욕봉사  
10 / 24일(2, 4주 목요일) 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준비  
3 / 10 / 17 / 24일(매주 목요일)  
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4 / 11 / 18 / 25일(매주 금요일)  
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인 이동목욕  
4 / 11 / 18 / 25일(매주 금요일)

10:00~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 목욕활동  
4 / 11 / 18 / 25일(매주 금요일)

09:30~12:00

- 4일(금) 참선모임  
(매달 첫 번째 금요일)
- 5일(토) 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8일(화) 참사랑노인건강센터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15일(화) 지역정화활동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15일(화)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25일(금)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금요일)
- 26일(토)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토요일)



**경남모임(055-266-0170)**

**2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 매월 셋째주 수요일(3월 16일) / 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 / 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 -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3월 22일) / 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2/5, 12, 19, 26일) / 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 / 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5시(3월 3일)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은비네 외 10가구)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3월 11, 25일) / 쌀, 밀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월 4, 11, 18, 25일)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3월 23일) / 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 - 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 / 구입문의 ☎(055)266-0170
- 운영위원회 - 3월 8일(화) 오전 6시 성주사



대구모임(053-753-8883)

### 3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
  - ▷ 매주 수요일(2/9/16/23일) / 11시 - 음식조리, 19시 - 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소리봉사 / 녹음봉사
  - ▷ 매주 월요일 - 개별녹음 / 정기모임 : 매월 셋째 금요일(18일) 오후 7시 (예정)
- 룸비니동산 자원봉사 활동
  - ▷ 매월 둘째 토요일(12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 15일(화)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황금복지관 주방보조 및 기타정리 봉사
  - ▷ 매월 첫째 화요일(1일) 11시부터



광주모임(062-236-3129)

### 3월 광주모임 정기활동 안내

- 법정스님 영상설법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월 1, 3주



금요일(3월 4일, 18일) 오후 2시 법정스님의 영상설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주신 법정스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주 월~금 각화복지관과 연대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사자 20명이 요일별로 조리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쌀, 양념류, 생필품 등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조리시간 : 오전 10~12시)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3월 대상도서 : 텃빈 충만) / 주제 : 큰 마음 / 독서지도 : 이신(통일사회연구소 소장) / 3월 9일 (둘째 수요일) 오후 2시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사무실 법정기념관
- 건강을 위한 티벳명상  
매주 둘째 금요일(3월 11일) 오후 7~9시. 지장왕사 4층 법당  
명상지도 : 나무 법사



## 여기는 길상사

### < 불교입문강좌 봄학기 개강 >

불교를 새롭게 접하여 신행 및 수행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입문강좌 봄학기가 3월에 개강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듯이 불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데에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길상사에서 첫 발을 내디뎌보시기 바랍니다.

- 개강 : 3월 9일
- 수업일시 : 주간반 - 수요일 오후 2시  
야간반 - 수요일 오후 7시 반
- 기간 : 3월 9일 ~ 5월 25일
- 문의 : 교무실 3672-0036

### < 3월 주말 선 수련회 안내 >

길상사 주말 선 수련회는 참가자들의 수준을 고려해 한 달에 두 번 신참반과 구참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불교를 갓 접하시거나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신참반에, 수련경험이 있거나 참선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구참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길상사 홈페이지 템플스테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참반: 매월 셋째 주말 (3.19~20)
- 구참반: 매월 넷째 주말 (3.26~27)

###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길상사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새신도 교육’이 열립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후 1시~2시 30분에 설법전 소강당에서 진행합니다.

- 프로그램  
1주차: 불교란 무엇인가?  
2주차: 예불문 공부  
3주차: 나를 깨우는 108배  
4주차: 생활 속 수행  
5주차: 스님과의 대화
- 지도: 총무 정산스님

### <3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및 기도>

- 일요일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삼천배기도 / 3월 12일(토) 8시 반
-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6시
-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6시
- 거사림 정기법회 / 1, 3주 일요일 오후 1시 / 설법전

- 보현회 정기법회 / 매달 음력 초하루 / 3월 5일 오후 1시
- 문수회 정기법회 / 매달 셋째 월요일 / 3월 21일 오후 1시
- 지장회 정기법회 / 매달 둘째 월요일 / 3월 14일 오후 1시
- 합창단 정기법회 / 매달 넷째 화요일 / 3월 22일 오후 1시
- 보리회 정기법회 / 매달 첫째 월요일 / 3월 7일 오후 1시
- 청년회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도서관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소강당
- 청소년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도서관



##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 마음을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늘 지니고 살기 위해  
참선수행을 하고 좋은 글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외로운 이들, 결식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고 덜어주기를 성심껏 합니다.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